

# 관상용 둥굴레 재배기술 개발

## 품질향상 수확기간 단축

둥굴레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보통 약재로 쓰이는 둥굴레를 재배해 관상용 절화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재배방법은 3~4년 동안 자란 굵기 7~10mm의 둥굴레 뿌

리에 숨은 눈(잡아)이 두 개쯤 붙어 있도록 Y자 형태로 포기나눈 뒤 30x20cm 간격으로 봄·가을에 아주심어 키우는 것이다. 이때 심는 깊이는 2~3cm가 알맞고, 물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에서는 알맞은 높이로 두둑을 만들어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퇴비만을 밑거름으로 10a(300평)당 3t정도 투입하는 것이 알맞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같이 아주심어 4년동안 둥굴레를 재배한 결과 10a당 888kg의 씨뿌리가 생산됐다. 특히 재배할 때 최소 2년 이상 지나야 꽃이 피는 것보다 절화 수확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됐을 뿐 아니라 절화의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약초 당근뿌리혹선충 방제

## 의성약초시험장 체계화

약초의 당근뿌리혹선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체계화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은 황기·만삼·백지·방풍등 뿌리를 이용하는 약초의 경우 씨앗을 파종하기전 포장에 고시된 살선충제를 살포하고, 유기물을 10a(300평)당 3t이상 넣어주면 뿌리혹선충의 밀도를 현저히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근뿌리혹선충은 약초 뿌리에 혹을 생기게 하고 곁가지 발생시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그동안 약초 재배농가의 퇴치에 고민거리였다. 특히 약초를 이어짓기할 때 대량으로 발생해 생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의성약초시험장 연구결과 당근뿌리혹선충의 서식밀도가

토양 300ml당 500마리 정도일 경우 황기에서는 약 44%의 수량이 감소됐고, 백지는 180마리에서 20%, 만삼의 경우 390마리에서 33%의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서식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방제 약제로는 <포스치아제이트>입제(상품명 선충탄), <에토프>입제(상품명 모캡), <타보>입제(상품명 카운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방법은 씨앗을 뿌리기 전 10a당 <포스치아제이트>입제와 <타보>입제의 경우 6kg, <에토프>입제는 9kg을 포장에 살포하고 깊게 로터리를 친 뒤 퇴비를 3t 이상 많이 넣어준다.

# 인삼 생력재배 시범사업 '관심'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전섭)가 인삼 조립식 절재 해기립시설 및 폴리에틸렌(PE)차광망, 관수시설 등 현대화 인삼 재배시설을 이용한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임황빈씨(남면 대선리) 포장 1,500평에 설치한 현대화 인삼 재배시설은 설치작업이 쉽고 목재시설비에 비해 비용이 30%가 절감되며 시설물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복분자 수요급증 재배농 신바람

전북 고창을 비롯해 정읍·순창 등지에서 수확하고 있는 복분자가 개인 수요 폭발로 수출공장의 원료수매가 어려워 만큼 공급부족을 빚고 있다.

고창복분자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예상생산량은 고창지역 140톤과 순창·정읍지역 60톤 등 모두 200여 톤으로 지난해 110톤에 비해 갑절로 늘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80% 정도 수확을 마친 복분자의 효능과 술맛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례적으로 가정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복분자 술공장들이 원료수매를 걱정하는

란 100여점, 장뇌삼 300여점을 2002년까지 상품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동양에서 가장 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양묘사업장에서 자생화와 허브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등 분재상품 개발을 위한 입목재배 및 분재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 관계자는 "야생화와 허브식물 분재 상품화는 산림 소재와 소득을 연계하는 첫 시범사업"이라며 "분재 생산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농가에 전수하면 산촌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정이다. 수매값은 1kg에 6,000원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가정용 수요 급증으로 시중에 나도는 물량이 없어 최근 거론됐던 일본 수출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416 농가가 69ha에서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 고창군은 최근 복분자 재배 활성화 추진대회를 여는등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 2005년까지 600톤의 복분자를 생산할 계획이다.

# 앞서가는 생약인

이용황  
경기도 지회장



"우리땅에서 나는 토종약초는 소중한 자원식물인 동시에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생약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생약농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황(61세) 경기도지회장이 갖 입회한 도지회 신입회원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다.

지난 94년 지회장직을 내놓고 평회원으로 돌아간 이용황씨가 다시 경기도지회장직을 맡은건 올 4월. 이 지회장의 남다른 열성 탓에 경기도지회는 최근 눈에 띄게

# '약초생산 유통의 메카' 를 꿈꾸며

## 지회 활성화 위해 구슬땀

### '1인1품목 책임제' 로 약초전문가 양성

변화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지회 대의원수가 4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정기회의 참석율은 물론이고 필요할 때면 언제고 비정기적인 모임도 수시로 갖고 있는 것. 회원간의 접촉이 잦으니 자연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그같은 분위기 조성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 담당은 이지회장과 이진경 총무(안산시지부장)의 몫이다.

경기도지회는 최근 작지만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추진 중이다. 다름아닌 신입회원을 중심으로 황기, 당귀, 작약, 천궁, 지황 등 10개 품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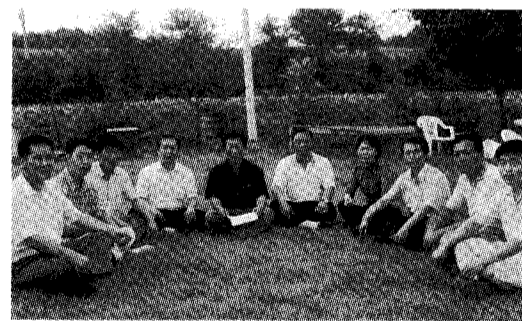
대해 "1인1품목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 1인1품목책임제란 회원 한사람이 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3백평 이상, 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고 다음해에는 또다른 품목을 돌아가면서 재배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회원들 모두가 생약재배에 관한한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지회장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 신입회원교육도 그같은 맥락이다.

지난 7월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열린 신입회원교육에서 이지회장은 생약재배법에서 부터 민간요법 그리고 공판장 운영요령 등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재

배경험과 노하우의 일부를 공개했다.

"앞으로도 신입회원은 물론이고 기존회원들에게도 우리약초의 재배노하우와 방제법 등에 대해 틈틈이 교육할 계획"이라는 이지회장은 또 도지회 차원에서 5천평 규모의 약초시험포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 수확, 공동 출하를 기본 개념으로 출발한 것. 첫해에는 5천평에서부터 출발하여 향후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한약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경기도지회 공동의 포장지 디자인을 새롭게 도



◇ 이지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제작하는 안도 지회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약초생산 및 유통의 메카"를 꿈꾸며 경기도지회 활성화를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 지회장.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계약재배와 수매제를 활용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약초도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지회장의 말속엔 생약농업을 지켜가고자 하는 토종약초꾼으로서의 열정은 믿음이 보인다. <문정희>